

Franz Kafka: "Das Urteil" 研究

권 오 상*

— < 차 레 > —

- I. 서론
- II. 합법성과 힘
- III. 죄와 죄책감
- IV. 상징적 아버지와 상상계
- V. 결론

I. 序 論

본 작품은 Kafka의 일기에 의하면 1912년 11월 22일 밤부터 23일 사이 즉 밤 10시부터 새벽 사이에 중단함이 없이 단숨에 씌어 졌다.(T 293) “어느 날 밤의 유령”(T 293)인 본 작품의 사건은 1914년 7월 12일 “der Askanische Hof”(T 407)에서 그리고 1917년 크리스마스 이브(F 771)에 다시 나타난다. 이 양일에 Kafka와 Felice Bauer사이의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파혼이 있었던 것이다. Kafka는 본 작품에서 그녀에게 좌절된 약혼의 이야기를 헌정하고 있는데¹⁾- 그녀 이름의 첫글자가 작중인물 중 여주인공인 약혼예정자의 이름 첫 글자에 나타나 있다(T 297)- 이것은 하나의 비밀이라기 보다는 차라리 공개적으로 그녀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일일 것이다.

의심할 여지 없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갈등²⁾을 다루고 있는 본 작품에 대해 Kafka 자신은 본 작품을 “약간 거칠고 무의미하며”(F 156), “정확하게 연관된 추적가능한 의미를 끝바로” 발견할 수는 없으

*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독어독문학과 교수

1) Vgl. Jürgen Demmer: Franz Kafka. Der Dichter der Selbstreflexion. Ein Neuansatz zum Verstehen der Dichtung Kafkas. Dargestellt an der Erzählung Das Urteil, S. 106 ff.

2) Hartmut Binder: Kafka Kommentar zu sämtlichen Erzählungen, S.123.

며(F 349), “원래 설명은 불가능하다”(F 396 f.)라고 말 하고 있다.

“Das Urteil”에는 욕망(Begehren)과 힘(Macht)과 합법성(Recht) 등이 이유의 설명이나 정서적인 가치판단을 생략한 채 서로 얽혀 있어서 사건의 인과관계에 대해 무엇인가 인식해보려는 독자는 연상적 의미를 지니면서도 상징적인 의미의 여러 요소들을 수수께끼 풀 듯 면밀히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

작가 자신의 언급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본 작품은 그 패러독스한 내용으로 인해 해설이 용이하지 않지만 본고에서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표출되고 있는 上述의 욕망과 힘과 합법성 등을 중심으로 본 작품의 해설을 시도해보려고 한다.

II. 합법성과 힘

왜 Georg는 “선고”를 받는가? 아버지는 “친구”와 서신교환을 정말로 하고 있는가? 혹시 이 친구는 없는 것 아닌가? 등의 수수께끼들은 - 대체로 이런 수수께끼들은 전기적 자아(작가)를 참고로 해서 해석학적 방법으로 풀어보려고 시도되었다.- 본 작품의 주체들이 서로 상대방 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까지도 알수 없는 존재로 되고 있는 지점과 접하고 있다. 즉 무의식적인 동기들이 본질적으로 Georg의 행동과 그의 “판사”인 아버지의 행동을 결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또 다른 편에서 보면 “판결을 내리는”아버지는 아들의 비밀스런 생각과 그의 무의식적인 동기들을 본인인 아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아버지의 행동동기 역시 언급이 없다. 즉 그 역시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독립된 개체로서가 아니라 Georg의 投射로서, 살아 있는 Georg의 像으로서 행동한다.

파악하기 힘들고 신비로 가득찬 본 작품이 지닌 추정가능한 의미의 일부가 화자측에 의한 연상적 의미의 암시를 토대로 드러나게 된다. 주인공도 내용의 해설을 강요받지만 성과는 없는 반면에, 독자는 은폐와 노출을 반복하는 텍스트로부터 일반적인 경향에 따라 그 의미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다.

의형적으로 볼 때 “Das Urteil”은 “In der Strafkolonie”와 마찬가지로

범죄소설이며, 이들 작품들에서는 범죄구성요건이나 동기 등이 해명되지도 않고, 또 당사자들, 즉 선고를 내리는 편과 선고를 받는 편 중 어느 편에 합법성이 있는가가 밝혀지지도 않은 채 선고와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Kleist의 "Michael Kohlhaas"에서와 마찬가지로 양측은 합법성과 불법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서로 엄청나게 다른 두 개의 시각들이 패러독스하게도 하나의 시각으로 응축되는 방식으로 상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즉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리는 판결은 한편으로는 "피고"의 당연한 욕망에 대한 독재적인 폭력이며, 다른 편으로는 피고의 무의식적인 공격행위와 음모에 대한 외형상 정당한 선고가 되는 것으로, 아버지의 시각에는 합법성과 부당성이 동시에 존재한다.

법률자체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언제나 법률 외적이고 일상적이며 사적이고 무의식적인 영역에 근거를 두고 있는 범죄구성요건들, 그리고 동기들을 탐지해서 확인하는 일은 법률상의 이유를 결정하는 일과 함께 주인공의 몫이며 더욱이 더 많은 부분이 독자에게 일임되어 있다. 이 일에서는 시공적이고 인과적이며 그리고 구체적인 관련성을 드러내는 간접증거들은 결코 단 한번도 드러난 적이 없으며, 단지 정신적 자세를 보여주는 징후들이 있을 뿐이다. 즉 주인공인 아들 측에서는 도덕적인 범죄로 추정할 수 있는 연상적 의미의 상징적 징후를 찾을 수 있고, 아버지 측은 선고와 처벌의 이유들이 문제가 있다는 징후를 보일 뿐이다. "Der Prozeß"가 Dostojewskij의 "Schuld und Sühne"를 암시하고 있지만³⁾, 여기에서도 우리는 "Schuld und Sühne"와의 비교가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Schuld und Sühne"에서는 범행과는 다소 無關하게 주인공인 Raskolnikov와 그리고 사법기구의 도덕적 實體를 규명하는 일이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독자나 예심판사 Porfirij에게는 외적으로 나타난 상황들은 처음부터 명백한 것이었고 재판과 수사형식은 일차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Kafka는 이런 구조를 차용하여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원래의 범죄행위를 완전히 제거해버렸고 그것 외에 주인공이 상황인식과 자기인식의 과정에서 실패하도록 하고 있다. Kafka 작품에서는 탐정소설의 왜곡현상이 나타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즉 범죄구성행위와 간접증거

3) Hartmut Binder: Kafka Kommentar zu den Romanen, Rezensionen, Aphorismen und zum Brief an den Vater, S. 201 f.

들은 원래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 하며, 기본적으로 인식과정은 실패한다. 미지수가 하나가 아니고 둘이다. 왜냐하면 피의자도, 고발하고 판결하는 당사자도 둘다 도덕적, 법적으로 완전무결하게 정당성을 갖고 있지 못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Das Urteil”과 “Der Prozeß”를 생각해 보면, 전형적인 類型으로 다음과 같은 재판을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1)재판의 근거가 되는 확정된 법이 없고, 2)범죄행위가 전혀 없거나, 비록 그것이 있다 하더라도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중요성이 결여되었거나 하고, 3)합법적인 고발자가 없고 다만 편파적인 반대의 세계가 있을 뿐이며, 4)판사 즉 신중하고 정확하게 성찰할 수 있는 제3자가 없고, 5)소송의 진전이 전혀 없는 재판이 바로 그것이다⁴⁾.

독자에게는 주인공에게와는 달리 재판 당사자들의 비밀스런 동기가 하나 하나 보이기 시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가 보기에 도합법성과 불법성이 서로 얽혀져 있어서 양 당사자들이 이것들을 동시에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 역시 판단력을 상실하고 있다. 좀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판단력을 탈취당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제3의 상위 재판기관이 없이 양쪽 당사자들은 각자가 합법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며 서로 충돌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쪽 당사자들이 죄와 무죄 내지 합법성과 부당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 두 개의 상반된 개념들이 하나로 묶임으로써 그 개념들이 갖는 효력이 상실되는 패러독스한 구조를 대하게 되고, 이런 구조는 “판단가능성”을 마비시키려하고 있는 것이다.

결정론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합법성을 부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를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힘의 영역과 도덕적 과오와 무의식적인 부도덕성을 정당하게 고발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영역이 겹쳐지게 된다. 그러나 최소한의 과오 또는 무의식적인 죄(그리고 정당한 유죄 판결)의 요소들이 간접적으로 암시되었다고 여길 수 있는 경우에서 조차도 힘에 의해 조작되고 힘에 의해 강요된 비합리적인 죄책감과 자

4) Ulf Abraham: Der verhörte Held. Verhöre, Urteile und die Rede von Recht und Schuld im Werk Franz Kafkas, Diss. Erlangen 1983 spricht von “Gesetz ohne Inhalt”, “Anklage ohne Vergehen”, “Urteil ohne Instanz”, zitiert in: Hans Helmut Hiebel: Die Zeichen des Gesetzes. Recht und Macht bei Franz Kafka, S. 116.

기 평가절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까 라는 의문이 생기게된다. “원래 아무 것도 없었던 곳에서”(P 179) 하나의 “죄”가 꼬집어내어진다. 이 죄는 고발과 심문 그리고 유죄판결등의 의식들 거치는 가운데서 생산되는 것이다⁵⁾.

“Das Urteil”에서는 “Der Prozeß”에서와 마찬가지로 무의식적인 “죄”의 정황증거들이 일차적인 의미영역을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다. 그것은 마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이루어지는 말의 실수가 그렇지 않은 정상적인 말로, 그리고 Rothschild의 “친밀한(famillionnaire)”⁶⁾ 웅대의 표현에서 처럼 행동의 실수가 정상적 행동으로 오인될 수 있는 것과 같다. 그러나 底邊에 깔려 있는 무의식적인 죄책감은 - 이것은 에디푸스적인 원초적 장면과 함께 타협의 여지가 없는 개체 발전과정의 산물이다 - 원래 좋다 나쁘다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이이 아니다. W. H. Sokel에서 처럼⁷⁾ “죄책감”과 “죄”를 동일시하는 일은 작중인물과 저자를 동일시하는 것처럼 무의식과 의식을 실수로 동일시하여 “대부분의 작품은 무한정의 힘에 대한 반작용”⁸⁾인 Kafka 작품에 나타나 있는 풍자성을 왜곡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반작용은 그것이 운명에 굴복한 주인공들에 의해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저자의 고발적인 표현 방식에서 나오는 것인지 선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Ⅲ. 죄와 죄책감

본 작품의 거의 모든 해설자들은 주인공 Georg Bendemann이 범한 일종의 - 도덕적, 정신적 그리로 사회적 - “죄”를 출발점으로 하여 해설을 시도하고 있다⁹⁾. 얼마 안되는 예외에 속하는 Walter Benjamin은

5) Ulf Abraham: Der verhörte Held. Verhörsituation und Schuldgefühl im Werk Franz Kafkas, Zulassungsarbeit, S. 77.

6) Sigmund Freud: Der Witz und seine Beziehung zum Unbewußten, S. 20ff.

7) Walter H. Sokel: Franz Kafka. Tragik und Ironie, S. 47, 57, 75.

8) Theodor W. Adorno: Aufzeichnungen zu Kafka, S. 262.

9) Walter H. Sokel: a. a. O., S. 45 ff. / Edel Edel: Das Urteil, in: Wirkendes Wort 9, 1959, S. 216 - 225. / Karl H. Ruhleder: Franz Kafkas “Das Urteil”. An Interpretation, in: Monatshefte für den Deutschunterricht 55, 1963, S. 13 - 22. / Herbert Tauber: Franz Kafka. Eine Deutung seiner Werke, S. 24 f.

Kafka 작품에 등장하는 아버지들, 힘의 소유자들 그리고 관리들의 罪 내지 寄食性 그리고 腐敗性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¹⁰⁾. H. Richter 역시 바로 시민의 직업상의 “業務”가 주인공 Georg Bendemann으로 하여금 “인간의 道理”를 파악하는 일을 疎遠하게 하고 있고, Kafka의 사회체제 비판은 오직 소외와 이기주의의 전제가 되는 “자본주의 사회 질서”만을 인식하지 못 하고 있다는 점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¹¹⁾. Bendemann의 “죄”에 대한 이와 같은 잘못된 주장을 P. U. Beicken 역시 거부하고 있다. 그는 Kafka가 Bendemann의 직업처럼 부르조아의 직업이 갖고 있는 숙명적인 면을 아주 의식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다만 그 代案을 기획 할 수 없었을 뿐 이라는 점에서 출발하고 있다¹²⁾.

다음의 모든 해설들은 주인공의 명백한 “죄” - 작가는 주인공의 시각을 무조건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를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이 해설들은 Kafka의 작품들 속에는 傳記적인 요소가 숨어 있다는 前提에 따라 주인공의 사회적인 존재 - 결혼과 직업 -를 獨身主義의 작가적 존재에 대한 배신으로 파악하고 있다. 즉 Kate Flores¹³⁾, H. Politzer¹⁴⁾, W. H. Sokel¹⁵⁾, Ingo Seidler¹⁶⁾, Lawrence Ryan¹⁷⁾, Heinz Hillmann¹⁸⁾, P. U. Beicken¹⁹⁾, Jürgen Demmer²⁰⁾ 등이 上述의 立場을

10) Walter Benjamin: Franz Kafka. Zur zehnten Wiederkehr seines Todestages, in: Gesammelte Schriften II/2, S. 411.

11) Helmut Richter: Franz Kafka. Werk und Entwurf, S. 109 ff.

12) Peter U. Beicken: Franz Kafka. Eine kritische Einführung in die Forschung, S. 241 ff.

13) Kate Flores: The Judgement, in: Franz Kafka Today, hrsg. v. Angel Flores und Homer Swander, S. 5 ff.

14) Heinz Politzer: Franz Kafka. Der Künstler, S. 107.

15) Walter H. Sokel: a. a. O., S. 44 ff.

16) Ingo Seidler: Das “Das Urteil”: Freud natürlich? Zum Problem der Multivalenz bei Kafka, in: Psychologie in der Literaturwissenschaft, hrsg. v. Wolfgang Paulsen, S. 174 - 190.

17) Lawrence Ryan: “Zum letztenmal Psychologie?” - Zur psychologischen Deutbarkeit der Werke Franz Kafkas, in: Psychologie in der Literaturwissenschaft, S. 164 ff.

18) Heinz Hillmann: Kafkas “Amerika”. Literatur als Problemlösungsspiel, in: Der deutsche Roman im 20. Jahrhundert, Bd. 1, hrsg. v. Manfred Brauneck, S. 135 - 167.

19) Peter U. Beicken: a. a. O., S. 246.

20) Jürgen Demmer: a. a. O., S. 166.

취하고 있는 것이다. 먼 곳에 떨어져 있는 고독하고 병든 친구는 이들 해설에서는 Georg의 제2의 자아 내지 분열을 보이고 있는 서사적 자아, 즉 텍스트의 이면에 숨어 있는 작가가 가지고 있는 서로 상충하는 두 개의 像 가운데 하나인 셈이다.

上述의 立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다른 異議가 제기될 수 있다. "Brief an den Vater"에 의하면 Kafka에게는 "家庭"이 "최고"의 것이며, "結婚"이 "가장 위대한 것"이며, 그것들은 아버지의 "고유의 영역"(H 216 f.)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차단되어 있다고 한다면, "죄"란 당치도 않는 것이다. 代案 - 의식불명의 고독(T 306) - 은 이렇게 보면 오직 도피일 뿐이다. 그러므로 "Das Urteil"은 차라리 출구없는 갈등 내지 짝패묵음을 각 본화한 것이다. 아들은 도망을 쳐도 아버지에게 예측되어 있고, 집에 있다해도 그에게 예측되는 것이다. 그에게는 단지 "자기자신을 去勢하느냐, 아버지를 去勢하느냐의 선택"²¹⁾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따라서 아버지는 판결을 내리는 宣告機關이 아니라 명령을 내리는 權力機關인 셈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해설자들은 더우기 Bendemann의 "죄"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이 경우 그들은 작가와 작품의 주인공은 동일하며, 주인공의 시민적 야심들, 자살까지 받아들이는 복종등을 고려해볼 때 작가는 주인공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Politzer는 Georg의 "자기중심 주의"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²²⁾, E. Edel은 "정신적 존재"의 명령들에 대한 죄에 대해²³⁾, E. R. Steinberg는 神父一體라는 관점에서의 화해의 죽음에 대해²⁴⁾, Ingo Seidler는 마찬가지로 관점에서 20세기의 물질주의적, 무신앙의 유태인을 심판하는 "여호와의 모습"에 대해²⁵⁾ 각각 언급하고 있다. Bert Nagel에 따르면 "Das Urteil"에는 모호한 아버지의 선고가 이 본질적인 죄와는 무관하지만 "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선행적이고 일반적인 존재(인생)가 나타나 있다²⁶⁾. W. H. Sokel이 주인공 Georg Bendemann의 죄를 가장

21) Walter H. Sokel: a. a. O., S. 59.

22) Heinz Politzer: a. a. O., S. 100.

23) Edel Edel: Franz Kafka: Das Urteil, in: Wirkendes Wort 9, H. 4, S. 216 ff.

24) Erwin R. Steinberg: The Judgement, in: Modern Fiction Studies 8, S 23 f.

25) Ingo Seidler: a. a. O., S. 188 ff.

26) Bert Nagel: Franz Kafka. Aspekte zur Interpretation und Wertung, S. 193 f.

자세하게 규명하고 있다. 주인공에게 여성은 “힘의 쟁취를 위한 투쟁, 존재를 위한 투쟁에서 첨가물 내지 힘의 상징”²⁷⁾으로서의 중요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Kafka는 결혼 불능을 자기 탓으로 돌리고 있고(T 315), 또 악혼 파기의 책임(T 34 f.)이 자기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傳記와 관련시켜 보면 위의 사실이 드러난다는 것이다²⁸⁾. 겸손한 태도, 경쟁심 그리고 비겁함등이 친구에 대한 Georg의 죄의 특징이며²⁹⁾, 가장 큰 죄는 아버지의 無力化 시도이다³⁰⁾. 위의 시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상속과 아버지의 홀대 그리고 “Totem und Tabu”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은 아버지에 대한 무의식적 반항이다³¹⁾. 무의식적인 “죄”가 구분없이 의식의 영역과 책임능력의 영역에 침투하고 있다.

Georg의 유죄를 전제로 한다면, 선고는 물론 “합법적”이고, 그의 자기처벌은 “죄의 고백”임에 틀림없다. 자기처벌이 죄의 고백이지, 나약함이나 복종의 표시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들은 주인공과 작가와의 관계를 따져봐야 할 것이다.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제문제에 답변을 하고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무리를 해서 Sokel은 아버지를 “노쇠해서 정신착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보지 않고³²⁾, 그가 주장한 죄에 대한 審判 機關으로 간주하고 있으며³³⁾, 주인공의 “자살”을 小兒의 발달단계에 상응하는 미친 증세로 보지 않고 “和解와 再歸鄉”의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³⁴⁾.

이에 반해서 J. Demmer는 죄의 요인들로 부터 출발 하고 있기는 하지만 본 작품을 작가의 “자기고발”과 “자기 정당화”가 서로 뒤엉킨 해결불능의 페러독스로 보려고 하고 있다³⁵⁾. 본 작품이 지니고 있는 문제는 사실 페러독스이다. 판사와 죄인의 관계는 힘을 가진 자와 희생자의 관계이다. 의미의 지연과 미끄러지는 은유에 따라 페러독스한

27) Walter H. Sokel: a. a. O., S. 46.

28) Ebd., S. 51.

29) Ebd., S. 47.

30) Ebd., S. 47.

31) Ebd., S. 56 f.

32) Ebd., S. 53.

33) Ebd., S. 57.

34) Ebd., S. 62.

35) Jürgen Demmer: a. a. O., S. 246.

구조가 복잡한 구조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즉 1) 무례함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도덕적인 실수의 최소한의 요인들이 Georg의 행동을 결정하고 있다. Brod와 Janouch와의 대화, 8권의 8절판 노트, 편지와 일기장 등에 나타나 있는 Kafka의 자기비판적 도덕주의가 본 작품에서도 작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들은 Georg의 행동을 결정하는 도덕적 실수의 요인들을 의미를 지닌 層位라고 천명할 수는 없다. 2) “선고”는 환상적 소망의 특징들을 갖고 있다. 즉 아버지 Herrmann Kafka는 시민생활이 아니라 “쓸모없는” 예술가 생활을 비난했다³⁶⁾. 3) 문제가 되는 것은 “물론 Freud”(T 249)이다. 즉 에디푸스 콤플렉스의 현상, 다시 말해 무의식적인 반항과 무의식적인 죄책감이 그것이다. 이 경우 합축적인 “原罪”(J 101 f.)는 근본적으로 도덕적 범주를 벗어나 있는 것이다. 아버지의 선고는 합법적일 수도 있고, 불법적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아들의 행위는 그것이 의식적인 것이냐, 무의식적인 것이냐에 따라 무죄일 수도 있고, 유죄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무의식에 근거하고 있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는 것이며, 그것을 처벌한다면 불법이 되는 것이다. 구조를 단순화해보면 의식적 행동노선과 무의식적 행동노선이 서로 교차하고 표개어짐으로서 페러독스와 多價의 미끄러지는 기호현상이 구축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본질적으로는 외형상 사실적으로 묘사된 노쇠한 아버지가 폭군적인 거인으로 변하는 순간부터 전개된다. 이 거인의 陳述들은 이제 독자들로 하여금 원래의 해결의 열쇠를 버리고 이불덮어주기(SE 29), 사업인수, 약혼, 친구와의 서신교류 등에 들어 있을 수 있는 비본래적인 의미들을 찾아보도록 하고 있다. 무의식적인 “죄”는 그 말이 의미하고 있는 것처럼 주체가 죄를 의식하고 있지 못 하기 때문에 도덕적인 범주에 넣을 수 없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이 무의식적인 죄는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兩價의이고 따라서 모순적이다. 첫째 순진무구한 아이의 욕망은 어떠한 근거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금지의 힘에 의해 차단되고 있다. 다른 한 편으로는 이 아이의 쾌락원칙은 현실원칙 즉 (근친상간의 금지와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현실세계로의 편입을 요구하는) “법”을 수단으로 막아야 할 개체발전 상의 필요가 있는 것이다. 상징적인

36) Peter U. Beicken: a. a. O., S. 246.

아버지 살해가 여기에서는 “죄”가 되고 있다. 이 죄는 여기에서는 단지 상징적이고 문화적인 질서의 대표자일 뿐인 아버지에게 대한 부당하고 小兒的인 공격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이 무의식적인 “죄”와 죄책감의 요소는 그러므로 양가적이며 페러독스한 것이다.

IV. 상징적 아버지와 상상계

사업에 실패하고 가족과 멀리 떨어져 해외에서 그곳 동포들(“해외거류 동향인들”)(SE 23)과도 疎遠한 채 독신자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친구는 “나이든 어린애”³⁷⁾로서 “이국풍의 수염”이 어린아이 때부터 낫익은 그의 얼굴을 불상사납게 덮고 있으며, “Die Verwandlung”의 주인공 Gregor Samsa와 “Ein Landarzt”의 소년처럼 병을 앓고 있다. 이 친구가 Georg Bendemann의 진짜 짝이며 그 자체로서 작품에는 전혀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 서사적 자아이다. 이 자아는 꿈의 논리에 따라 분열현상에서만 파악될 수 있을 뿐이다. 이 옛 자아가 본 작품의 樞軸이다.

Georg는 이 친구에게 그로 부터의 해방의 표시로서 “고별편지”를 전달하려고 한다. 사업성공과 약혼이 독신자인 친구로 부터의 해방의 상징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편지전달의 의사표시가 있자 마자 아버지는 “거인”(SE 26)처럼 “천정”(SE 29)까지 닿도록 벌떡 일어서게 되고 “원초적 장면”이 반복된다. 이 원초적 장면이 드러내 보이는 像은 “실제의” 아버지 像과는 명백히 다른 것이다. 본 작품에 나타나는 아버지는 “상징적 아버지”³⁸⁾로서 힘이 있거나 없거나, 또 합법적이거나 불법적이거나를 떠나 다만 일종의 문화적 기능만을 수행한다. 禁忌를 설정하고 나르시시즘적인 쾌락원칙을 현실원칙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이 금기가 가족의 영역을 벗어나 외부까지 미치고 있는 것은 페러독스하다. 어머니 像이 신부에게로

37) Kafka의 소아 내지 청년과 같은 기질에 대해 Max Brod는 Kafka의 다음과 같은 말을 전하고 있다: “Ich werde nie das Mannesalter erleben, aus einem Kind werde ich gleich ein weißhaariger Greis werden.”(Brod 40)

38) Jacques Lacan: Schriften II, S. 89. zitiert in: Hans Hemmut Hiebel: a. a. O., S. 42.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Georg는 신부에게서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회상시키고 있다(SE 30).

마찬가지로 페리독스한 것은 이 抑壓이 원래 契機가 주어져야 할 현실원칙에까지도 가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Georg의 사업성공이 범행으로 간주되고 있다(SE 32). 에디푸스 콤플렉스가 갖고 있는 기능에 대해 정신분열중에서나 나타나는 아버지의 억압적인 행동행태를 통해 항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소망 = 거세”³⁹⁾라는 숙명적인 等式이 이 콤플렉스에 대한 후기 시민사회의 대응방식을 결정하고 있다.

환상적 공격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상징적 아버지 살해”는 본 작품에서는 두 번 나타난다. “그가 쓰러져 가루가 되어버리면 좋으련만”(SE 31)하는 생각에서와 아버지를 “이불로 덮어씌우는 동작”(SE 29)이 내포하고 있는 부차적인 의미형태 속에서 상징적인 아버지 살해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SE 28), 죽음이 임박한 것도 무의식 속에서는 소망충족의 신호인 것이다. 부인과 힘에 대한 요구는 “아이”(SE 23)인 친구에 대한 “배신”(SE 30)이다. 면밀하게 관찰해보면 친구의 “질투심”(SE 25)을 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자신의 성공을 알리는 데에 두려움을 갖는 것, 은밀하게 감추고 있는 죄책감 등이 배신의 본질이며, 이때의 죄책감은 아주 빠르게 힘을 무기력으로, 능력을 무능으로 바꿀 수 있다. 친구는 他者로서 거울 속의 Georg 자신이다. 친구는 投射로 인해 왜곡된 타자이며, 알레고리화된 Georg의 像인 것이다.

아버지 내지 超自我的 像이 이제 아들에게 자기파괴를 “선고”하며, “아이”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아들인 친구가 즐거운 마음으로 이를 집행한다. “이제 나는 너에게 물에 빠져 죽으라는 선고를 내리는 바이다!”(SE 32)라는 선고는 의식의 영역에서 보면 비현실적이고 그로테스크하게 보이지만 무의식의 영역에서는 철두철미하게 에디푸스적 장면의 논리를 따르고 있는 것이다. 당장은 아들의 병적인 복종에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되고 있다. 죄책감, 두려움, 자기평가절하, 처벌욕구 그리고 허약함등은 그러나 “죄”의 표현이 아니라 반대로 탄핵의 의미를

39) Gilles Deleuze / Felix Guattari: Anti-Ödipus. Kapitalismus und Schizophrenie, S. 436; zitiert in: Hans Helmut Heibel: a. a. O., S. 121.

내포하고 있다⁴⁰). Günther Anders는 Kafka에 대해 “존재하는 것은 그에게는 (비록 그것이 비합리적이라 하더라도) 정당하다. 힘은 그에게는 권능이며, 권능을 빼앗긴 자는 유죄이다.”⁴¹)라고 말하고 있는 데, 이것은 Kafka의 작중인물들에게만 적용되며, 또한 이 작중인물들의 무의식적 체험층위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이 인물들은 대부분 자아분열이 특징이다⁴²). 즉 의식적 행동과 무의식적 행동으로 자아분열이 일어나는 것이다. 서사적 주체가 “어린아이 같은” 친구와 그에게서 해방하려고 노력하는 Georg로 분열되는 것이 자아분열 현상들 중의 한 형태이다. 이 분열이 알래고리화된 분열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인물들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예가 바로 Josef K.이다.

본 작품의 끝 부분에 나타나는 Georg Bendemann의 복종적인 자살 행위는 어린아이 상태에 대한 고별통지 내지 그 상태로부터의 해방의 지를 虛構로 폭로하고 있다. Georg가 친구에게 쓴 결정적인 편지를 “주머니에서 조금만”(SE 27) 꺼내어 그것을 발송하기 전에 권위를 지닌 아버지의 동의를 확인하는 장면이 이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중요한 記標가 능력의 기호도 되고 동시에 무능의 기호도 되고 있다. 약혼이나 사업상의 성공같은 Georg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실질적인 것이 아니고 잠재적이고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능력은 언제라도 파괴될 수 있는 것이다. 편지는 개봉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암시되고 있는 내용이 말들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고, 또 말들 자체가 상징의 상징들 내지 記意가 없는 記標의 은유와 환유이기 때문이다⁴³). 기호의 기호는 몸의 흉터에서 또 한번 더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흉터가 갖고 있는 연상적인 의미는 아버지도 한때는 아들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신부가 아들을 유혹하는 장면을 신경질적으로 재현하는 장면에서 드러나는 아버지의 허벅다리 상처(SE 30)가 이것을 말해준다. 에디푸스 콤플렉스에서 유래하는 “죄” 내지 “상징적인 거세”⁴⁴)인 이 흉터는 아들들에게 “유전”(J 101 f.)되며, 아버지는 이들을 간파

40) Hans Helmut Hiebel: a. a. O., S. 121.

41) Günther Anders: Kafka. Pro und Contra, S. 100.

42) Vgl. Sigmund Freud: Die Ichspaltung im Abwehrvorgang.

43) Jacques Lacan: a. a. O., S. 36 ff.

44) Moustafa Safouan: Die Struktur in der Psychoanalyse, S. 290 f.

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자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기표가 Georg의 躊躇 속에 나타난다. 이 기표는 또 "Ein Bericht für Akademie"의 Rotpeter의 상처(SE 167)와 "Ein Landarzt"의 아들의 상처(SE 143) 그리고 "Die Verwandlung"의 Gregor Samsa의 부상(SE 96)에서 다시 나타나고 있다.

본 작품에서 그 내용이 사실적인 것에서 환상적인 것으로, 의식적인 것에서 무의식적인 것으로 급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원래 암시된 작품해설을 지양하지는 못 한다. 무의식적인 언어표현이 의식적인 언어표현 속으로 침투하고 있지만 그것을 무효화시키지는 못 한다. 연상의미가 지시의미 위에 포개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시의미가 없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버지와 신부와 친구에 대한 Georg의 행동에 대해 아버지가 보이는 폭군적이고 "광적인" 反應, 즉 힘과 무력, 불법과 무죄의 관계가 문제로 된다. 이러한 반응 내지 관계를 통해 본 작품의 패러독스한 구조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구조는 Georg의 도덕적 "범죄행위"로 인해 더 복잡해진다. Georg는 회사의 "직원" 증원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SE 24), 부정직하게도 친구에게 "중요치 않은 사건들"(SE 25)을 전하며, 신부를 사물 처럼 다루면서 그에게 신부와 의 친교를 제안하고(SE 26), 자기도취적 내지 이기적으로 "그들(자기와 신부)이 아버지의 장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SE 29)를 심사숙고한다.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이 도덕적인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Georg의 이러한 말과 생각들은 화자에 의해서는 패러독스한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다. 그러나 도덕적 관점에서의 이러한 패러독스한 사태는 유일하게 의미를 지닌 층위로 격상되지는 못 하며, 의미의 지연과 유동적 연상의미의 구성요소가 되는 것이다. 이 사태는 무의식적인 "죄"의 층위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들의 의식적이고 일상적이며 죄가 않되는 행동과는 비교될 수 없는 것이다. 약간의 패러독스한 사태는 자기도취적 행동, 즉 想像界의 영상 관계에 의해 결정된 思考로서 Georg의 행동의 특징을 이루고 있으며, 이 思考는 他者를 他者로서 인식하지 않으며, "第三者"인 "大他者"를 아직 받아들이지 않았거나 잘 못 받아들인 상태인 것이다⁴⁵⁾ 이런 점

45) Jacques Lacan: Die Familie, in: Schriften III, S. 54 ff., zitiert in: Hans Helmut

에서 본다면 “그럼 너는 이제 알겠지, 너 외에 또 무엇이 있는가를. 지금 까지 너는 단지 너 밖에 몰랐어.”(SE 32)라는 아버지의 편집광적 언사는 비록 연상적 의미의 간접적 방식이긴 하지만 진실을 말하고 있다 하겠다.

“第三者”는 “象徴界”의 대표자이며, 그러므로 Georg와 친구 사이에서 일어나는 投射들에 종지부를 찍고 Georg의 어린애 단계에 결별을 통고해야하는 것은 편지이며 문자들이다. 이 결별은 “象徴界” 속으로의 진입 즉 이루어져야 할 家庭과 사회적 교환의 순환 속으로의 진입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나이든 어린애”(SE 23)인 친구는 분명히 이것을 거부하고 있다. 진입은 실패한다. 본 작품은 이와 같은 실패 내지 실패의 반복을 형상화하고 있다. 진입의 실패로 인해 想像界와 投射의 공간이 갑자기 다시 펼쳐지게 된다. Georg는 “아버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아들로서의 존재”를 아직 잊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는 “수영”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영”을 하지 못 하는 것이다(H 332). 주체가 분열되어 그런 상태로 소멸되고 만다⁴⁶⁾.

이렇게 해서 Georg는 결국 “아버지를 쳐다보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할 일이 없게 되고”(T 296 f.), 그 결과 그에게 예속되고 만다. 그의 감정 속에서는 무죄에 대한 확신, 일종의 자기중심주의에 대한 예감 그리고 무의식적인 죄책감등이 서로 교차되기 때문에 그의 판단력은 마비된다. 그러나 무의식적인 죄책감은 도덕적인 의미에서의 유죄나 무죄의 영역 밖에 있는 것이다. 무의식에 대해 우리는 논쟁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현실원칙을 관철시키려는 기관에 대한 어린애의 반항은 그 기관이 오직 폭력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할 수도 있고 또 그 기관은 단지 문화적 질서의 법칙만을 따르기 때문에 “부당”할 수도 있다⁴⁷⁾. 판단마비와 무의식적인 죄책감이 Georg를 물 속으로 뛰어들도록 만든다. 무엇인가에 쫓겨 그는 강으로 가게된다(SE 32). 괴로워하면서 그리고 여기에 상응해서 탄원하면서⁴⁸⁾ 그는 다음과 같

Hlebel: a. a. O., S. 122.

46) Hermann Lang: Die Sprache und das Unbewußte. Jacques Lacans Grundlegung der Psychoanalyse, S. 259.

47) Walter Benjamin: Gesammelte Schriften II/2, S. 412.

이 절규한다: “ 사랑하는 부모님, 저는 두분을 언제나 사랑했었습니다.”(SE 32) 그러므로 Georg는 아버지에게 뿐 아니라 작고한 어머니에게 까지도 자신의 비탄을 호소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문제되고 있는 아버지는 인격체로서의 아버지가 아니라 여인에 관여하는 기관, 즉 욕망에 관련된 힘의 기관으로서의 아버지인 것이다.

V. 결 론

이상에서 고찰해본 것처럼 본 작품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리는 판결은 한편으로는 피고의 당연한 욕망에 대한 독재적인 폭력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의 무의식적인 공격행위와 음모에 대한 외형상의 정당한 선고가 되는 것으로, 아버지의 시각에는 합법성과 부당성이 동시에 존재한다.

에디푸스 콤플렉스에 근거하는 아들의 무의식적인 반항(공격)은 무의식적인 죄책감을 수반한다. 무의식에 근거하는 행동은 처벌할 수 없는 것이며, 처벌은 불법인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무의식적인 공격이 상징적인 아버지 살해가 되어 죄가 되고 있다. 이 죄는 단지 상징적이고 문화적인 질서의 대표자인 아버지에 대한 부당하고 소아적인 공격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이 무의식적인 죄와 죄책감은 그러므로 양가적이며 패러독스한 것이다.

본작품은 그 내용이 사실적인 것에서 환상적인 것으로, 의식적인 것에서 무의식적인 것으로 급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원래 암시된 작품해설을 지양하지는 못 한다. 무의식적인 언어표현이 의식적인 언어표현 속으로 침투하고 있지만 그것을 무효화시키지는 못 한다. 연상의 의미가 지시의 의미 위에 포개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시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버지와 신부에 대한 Georg의 행동에 대해 아버지가 보여주는 폭군적이고 광적인 반응, 즉 힘과 無力, 불법과 무죄의 관계가 문제로 된다. 이러한 반응 내지 관계를 통해 본 작품의 패러독스한 구조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구

조는 Georg의 도덕적 범죄행위로 인해 더욱 더 복잡해지는 것이다.

Kafka는 1913년 8월 14일의 일기에서 “Das Urteil”에서 내가 얻은 결론들. 몇번의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이 작품은 그녀(Felice) 덕이다. Georg는 그러나 신부로 인해 멸망한다.”(T 315) Georg는 친구에게 그로부터의 해방의 표시로 고별편지를 전달하려고 한다. 사업성공과 약혼을 통한 가정을 꾸미는 일은 독신자인 친구로부터의 해방을 상징하는 것이다. 환언하면 이 나이든 어린애인 친구로부터의 결별은 가정과 사회적 교환의 순환체계, 즉 상징계로의 진입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편지전달의 의사표시가 있자 마자 아버지는 거인 처럼 천장까지 닿도록 벌벌 일어섬으로써 원초적 장면을 연출한다. 이 장면에 나타나는 아버지 상은 실제의 아버지 상과는 달리 상징적인 아버지로서 아들로 하여금 상상계를 떠나 상징계로 진입하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문화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이다. 금기를 설정하고 나르시시즘적인 쾌락원칙을 현실원칙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그 역할이다. 본 작품에서는 페러독스하게도 아버지는 근친상간이라는 금기의 원칙을 가정을 벗어나 신부에게 까지 적용시킴으로써 아들이 상징계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진입은 실패한다. 아버지는 Georg가 결혼과 사업성공으로 대표되는 상징계로의 진입을 원치않는 것이다. 그는 아들이 아버지가 됨으로써 자기와 동등한 지위를 획득하는 것을 원치않고 독신자인 친구로 남아 계속 자기에게 예속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Georg의 유죄에 대한 수많은 논의들은 차치하고 “존재하는 것은 (비록 그것이 비합리적이라 하더라도) 정당하다. 힘은 그에게는 권능이며, 권능을 빼앗긴 자는 유죄이다.”라는 Kafka의 작중인물에 대한 G. Anders의 평만을 따른다 하더라도, Georg는 유죄가 된다. 본 작품에서는 아버지와의 싸움에서 아들은 단지 힘이 없다는 이유로 유죄의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Georg의 자기파괴는 신부에 대한 “힘의 기관”으로서의 아버지에 대한 그의 항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Literaturverzeichnis

I. Texte

- F = Kafka, Franz: Briefe an Felice, hg. v. Erich Heller und Jürgen Born, New York / Frankfurt a. M. 1967
- H = Kafka, Franz: Hochzeitsvorbereitungen auf dem Lande und andere Prosa aus dem Nachlaß, New York / Frankfurt a. M. 1966
- J = Janouch, Gustav: Gespräche mit Kafka. Aufzeichnungen und Erinnerungen. Erweiterte Ausgabe, Frankfurt a. M. 1968
- P = Kafka, Franz: Der Prozeß. Roman, New York / Frankfurt a. M. 1965
- SE = Kafka, Franz: Sämtliche Erzählungen, hg. v. Paul Raabe, Frankfurt a. M. 1969
- T = Kafka, Franz: Tagebücher 1910 - 1923, hg. v. Max Brod, New York / Frankfurt a. M. 1951

II. Sekundärliteratur

- Abraham, Ulf: Der verhörte Held. Verhörsituation und Schuldgefühl im Werk Franz Kafkas, Zulassungsarbeit Erlangen 1979
- Adorno, Theodor W.: Aufzeichnungen zu Kafka, in: Th. W. A.: Prismen. Kulturkritik und Gesellschaft, München 1963
- Anders, Günther: Kafka. Pro und Contra. Die Prozeßunterlagen, München 1972
- Beicken, Peter U.: Franz Kafka. Eine kritische Einführung in die Forschung, Frankfurt a. M. 1974
- Benjamin, Walter: Zur zehnten Wiederkehr seines Todestages, in: Gesammelte Schriften, Bd. II/2, hg. v. Rolf Tiedemann und Hermann Schweppenhäuser, Frankfurt a. M. 1977

Edel, Edel: Franz Kafka. Das Urteil, in: Wirkendes Wort 9, H. 4, 1959

Flores, Kate: The Judgement, in: Franz Kafka Today, hg. v. Angel Flores und Homer Swander, Madison 1964

Freud, Sigmund: Der Witz und seine Beziehung zum Unbewußten, in: Studienausgabe Bd. IV, Frankfurt a. M. 1972

Ders. : Die Ichspaltung im Abwehrvorgang, in: Studienausgabe Bd. III, Frankfurt a. M. 1975

Ders. : Trauer und Melancholie, in: Studienausgabe Bd. III, Frankfurt a. M. 1975

Hiebel, Hans Helmut: Die Zeichen des Gesetzes. Recht und Macht bei Franz Kafka, München 1989

Hillman Heinz: Kafkas "Amerika". Literatur als Problemlösungsspiel, in: Der deutsche Roman im 20. Jahrhundert, Bd. I, hg. v. Manfred Brauneck, Bamberg 1976

Lang, Hermann: Die Sprache und das Unbewußte. Jacques Lacans Grundlegung der Psycholanalyse, Frankfurt a. M. 1973

Politzer, Heinz: Franz Kafka. Der Künstler, Frankfurt a. M. 1978

Nagel, Bert: Franz Kafka. Aspekte zur Interpretation und Wertung, Berlin 1974

Richter Helmut: Franz Kafka. Werk und Entwurf, Berlin 1962

Ryan, Lawrence: "Zum letztenmal Psychologie!" - zur psychologischen Deutbarkeit der Werke Franz Kafkas, in: Psychologie in der Literaturwissenschaft, hg. v. Wolfgang Paulsen, Heidelberg 1971

Seidler, Ingo: "Das Urteil": Freud natürlich? Zur Problem der Multivalenz bei Kafka, in: Psychologie in der Literaturwissenschaft, hg. v. Wolfgang Paulsen, Heidelberg 1971

Sokel, Walter H.: Franz Kafka. Tragik und Ironie, München 1964

Steinberg, Erwin R.: The Judgement, in Modern Fiction Studies 8, 1962

Zusammenfassung

Eine Studie über das Werk "Das Urteil" von Franz Kafka

Kwon, O-Sang

Wie schon erwähnt, ist das Thema dieser Erzählung zweifellos ein Vater-Sohn-Konflikt.

Unrechtmäßigerweise tut der Vater gegenüber dem selbstverständlichen Begehren des Angeklagten eine autoritäre Gewalt an und verurteilt anscheinend gerecht über die unbewußte Aggressionen und Heimlichkeiten Georgs. Zwei miteinander inkommensurable Perspektiven verdichten sich paradox zu einer.

Die unbewußte Aggression des Sohnes, basiert auf dem Ödipuskomplex, bringt das unbewußte Schuldgefühl mit sich. Das unbewußte Verhalten kann nicht gestraft werden, also ist Strafe dafür unrecht. Aber die unbewußte Aggression gegen den Vater wird hier zur Schuld, weil sie den symbolischen Vaternord bedeutet. Die Schuld entspringt der unberechtigten, infantil-mißverstehenden Aggression gegen den Vater, der hier nur Repräsentant einer symbolischen, kulturellen Ordnung ist. Das Moment der unbewußten Schuld - des Schuldgefühls - bleibt also in sich ambivalent und paradox.

Der Umschwung vom Realistischen ins Phantastische, vom Bewußten ins Unbewußte hebt indessen die ursprünglich nahegelegte Lesart nicht auf. Der unbewußte Diskurs dringt in den bewußten ein, ohne ihn jedoch aufzulösen. Die Konnotation überlagert die Denotation, die keineswegs aufgehoben wird. An der Oberfläche handelt es sich um die tyrannische und verrückte Reaktion des Vaters auf Georgs Verhalten sowohl ihm als auch der Braut und dem Freund gegenüber, d. h. um ein Verhältnis von Macht und Ohnmacht, Unrecht und Unschuld. Dadurch konstituiert sich die paradoxe Struktur der Erzählung. Sie wird noch verkompliziert durch die moralischen Vergehen Georgs.

Kafka schreibt am 14. August 1913: "Folgerungen aus dem "Urteil" für meinen Fall. Ich verdanke die Geschichte auf Umwegen ihr. Georg geht aber an der Braut zugrunde."(T 315) Georg will dem Freund das Kündigungsschreiben, das Zeichen der Emanzipation, als deren Symbole Geschäftserfolg und Verlobung fungieren, zukommen lassen. Mit anderen Worten ist die Familienstiftung durch Geschäftserfolg und Verlobung Symbol der Befreiung von dem Freund. Das Kindsein Georgs aufzukündigen bedeutet den Eintritt in die "symbolische Ordnung", d.h. in die zu gründende Familie und in den Kreislauf sozialen Austausches. Auf das Zeichen Georgs, das Kündigungsschreiben zukommen zu lassen, aber erhebt sich der Vater wie ein Riese bis zum Plafond, wiederholt sich die Urszene, deren Imago deutlich von dem Erscheinungsbild des "realen" Vaters unterschieden ist. Nun geht es um den symbolischen Vater, der jenseits von Kraft und Schwäche, Recht und Unrecht nur eine kulturelle Funktion ausübt: die der Setzung des Tabus, der Überführung des narzißtischen Lustprinzips ins Realitätsprinzip. Paradoxerweise aber hat sich das Inzesttabu über den familialen Bereich hinaus bis zur Braut ausgebreitet. Die Familienstiftung scheitert. Dadurch verhindert der Vater den Eintritt Georgs in die symbolische Ordnung. Den will er nicht. Er wünscht nicht, daß sein Sohn die patriarchalische Machtstellung als Vater einnimmt. Er zieht die Existenzweise des Freundes, der fortwährend ihm unterwirft, der sozialen Georgs vor.

Abgesehen von den Behauptungen, Georg sei schuldig, kann er seine Schuld nicht verneinen, wenn man Günther Anders folgt, der von Kafka sagte: "Was ist, ist ihm (wenn auch nicht vernünftig, so doch) berechtigt: Macht ist ihm Recht. Und der Entrechtete schuldig." Im Kampf gegen den Vater gerät er nur deswegen in die schuldige Situation, weil er der Entrechtete ist.

Die Selbstvernichtung Georgs kann ein Protest gegen den Vater als eine in Relation zur Frau stehende Instanz, eine auf das Begehren bezogene Machtinstanz sein.